

예수 그리스도와 이교의 신들

최혜영(전남대 역사학)

얼마 전 동아일보사에서 번역되어 베스트 셀러가 된 『예수는 신화다』라는 책은 예수 그리스도와 고대의 신 오시리스-디오니소스의 공통점을 나열하면서 예수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신화적 인물임을 증명하고자 애쓰고 있다. 사료의 왜곡, 변용, 잘못된 추론, 과장, 허위, 무지 등의 여러 장치가 복합적으로 작용되는 책이지만 이에 관한 지식이 열고, 믿음도 여린 이들의 걸림돌이 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와 관련하여 특히 로마 제정 후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벌로 인기가 많았던 이교적¹⁾ 신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예수 그리스도와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무엇인가를 비교함으로써 기독교의 본질을 부각해보고자 한다.

I.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벌 신들

1. 헤라클레스

그리스 신화의 대표적 영웅이자 수많은 영웅 행각 특히 12개의 위업을 이룬 헤라클레스는 전통적으로 문학자, 철학자들에게 모범적인 지도자, 이상적인 구세주로서 널리 인식되어 있었다.²⁾ 고대 그리스의 수많은 영웅과 왕들이 스스로 헤라클레스의 자손임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의 스토아 학파라든가 건유주의파 등의 철학자들 사이에서도 헤라클레스는 지혜와 미덕의 화신으로 간주되었다. 또한 알렉산더로스 대왕을 비롯하여, 로마 시대의 많은 황제들도 헤라클레스를 모방하고자 하였다.³⁾ 그런데 이러한 헤라클레스의 인기가 절정에 달한 때는 로마 제정 말기의 디오클레티아누스 때이다. 디오클레티아누스의 4두정 하에서 정제(正帝) 아우구스투스는 유피테르로, 부제(副帝)는 헤라클레스로 비유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들 황제들이 자신들의 파트너로 신들의 왕 유피테르를 택한 것은 당연하지만, 제2인자로 수많은 신들 중 헤라클레스를 선택

1) 영어의 paganism이다. 이는 라틴어 paganus에서 연유한 단어이다. ‘paganus’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다. 전통적인 견해에서는 ‘paganus’가 농민(peasant)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보았다. 흔히 기독교가 도시를 중심으로 번져 나갔다는 데서, 농촌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라는 의미가 강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견해는 동쪽 그리스에만 해당하는 현상이라는 점을 고려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즉, 대체적으로 서유럽, 특히 로마에서는 4세기 말까지도 도시 최고의 귀족 계층에서 이교도의 세력이 강하였으므로, 농민들의 종교란 의미는 잘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1899년 잔(T. Zahn)은, 고트프리트(D. Godefroy)의 뒤를 이어 ‘paganus’를 군인과 대비되는 민간인이라는 의미로 제시하였다. 왜냐 하면 3세기경 기독교 문학에서 기독교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들로 흔히 비유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 당시 기독교보다는 오히려 미트라교가 더 강한 군대적 특성을 지녔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또한 그리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지 않는다. 최근 슈벡(P. Chuvin, *A Chronicle of Last Pagans*, trans. B.A. Archer, London, 1990. pp. 1-8.)은 ‘paganus’를 ‘pagus’의 거주민을 의미하는 용어로 보았다. 그 의미는 ‘pagus’인 자신의 거주지 즉, 조상의 유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도들이 ‘alieni’, 즉 다른 곳에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던 것과 대조되는 것이다. 이는 ‘pagus’의, 즉 ‘조상’의 종교로서 도시와 주변 농촌 지역을 모두 포함한 다양한 지역과 수많은 전통적 관행과 믿음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그 어느 견해보다 ‘paganism’의 성격을 잘 조명해 주는 설명으로 보인다. 2세기 때의 켈수스(Celsus)라든가 4세기경의 율리아누스 황제 등의 전통적 종교의 옹호자들이 처음부터 각 지방에서 존재해 왔던 관습을 버리는 것은 불경한 것이라고 보고 그러한 맥락에서도 기독교를 더욱 비판하였던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그러므로 ‘paganism’이 그 당시에 이미 오래 전부터 존재하였던 전통적인 종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정의내릴 수 있겠다. 다른 한편 ‘이교’란 한 마디로 무엇이냐고 정의를 내리기 힘든 공통성이 없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수많은 가치 체계와 양상을 포함하고 있다. 4세기경의 테마스티오스(Themistios)는 이교주의 내에 300개가 넘는 분파가 있고, 그 안에 수많은 혼란과 양식이 혼재한다고 하였다. 혹은 수많은 여러 종교가 모자이크화된 것이라고도 한다. 오늘날 윌킨슨(W.P. Wilkinson)은 ‘paganism’이 ‘patriotism’과 고전 문화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위에 있는 어떠한 해석을 따르든, ‘paganism’이 기독교와 대조적인 의미로 쓰이고 있으며, 그 안에는 그리스·로마적 전통 종교 혹은 헬레니즘적 전통 종교를 비롯하여 오리엔트에서 들어온 다른 많은 종교도 함께 포함이 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paganism’을 그리스·로마적 전통 종교 혹은 헬레니즘적 전통적 종교라고 번역할 수도 있겠으나, 너무 용어가 길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통상 쓰여졌던 것처럼 ‘이교 혹은 이교주의’로 쓰겠다.

2) 예컨대, 핀다로스, 소포클레스 등에 의해 헤라클레스는 인류의 영웅처럼, 신처럼 묘사되어 있다. 철학자들 특히 건유학파나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헤라클레스의 인기는 높았다. 프로디쿠스의 ‘선과 악 사이의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는 주제는 고대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었는데, 디온 크리소스토모스는 이를 ‘참주와 왕정’ 사이의 선택으로 각색하였다. Dion Chrys., *Log.*, I.48-84. cf. *Log.* IV.31; Cic., *Pro Ses.*, lxxviii.143; Ovid., *Metam.*, IX.256-8.

3) Eg. Arrianus, III.3.2; Dion Cass., IIIVII.37.52.2; Plut., *Fort. Alex.*, I.10.332a; Jul., *Caes.* 325a; Suet., *Nero*, 53; Dion Cass., LXII.20.5; A.D. Nock, “The Emperor’s Divine comes,” *JRS*, 37 (1947), p. 105; J.R. Fears, *Princeps diis Electus*, Rome, 1977, p. 261.

한 이유는 호기심과 흥미를 자아낸다. 매팅리(H. Mattingly)와 사이먼(M. Simon) 등은 그 이유를 기독교의 영향에서 찾고 있다.⁴⁾ 그 당시 퍼져가던 크리스트교의 성부 하나님과 성자 그리스도라는 구도에 대항하기 위해 신들의 왕 유피테르와 그의 아들 헤라클레스라는 이교 내의 복사관을 찾아내어 대항하려 하였다는 것이다. 실제로, 신의 아들로 태어나 생전의 고통과 공로에 의하여, 사후 신이 된 것으로 인식된 헤라클레스는, 역시 신의 아들로 태어나서, 십자가의 고통을 지고 하늘에 올려졌다고 믿어지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연상시켰으므로,⁵⁾ 많은 이교도들에게 예수를 능가하는 경쟁적 신으로 보여졌다. 4세기 경의 작가 마크로비우스는 *Saturnalia*에서 헤라클레스를 인간과 신들의 중재자로 묘사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 헤라클레스는 제우스가 인류를 구원할 목적으로 처녀 아테나 신의 도움으로 이 세상에 보냈어졌고, 몸과 지혜가 자라갔으며, 피곤과 음식의 부족, 고독 등에 시달리다가, 또한 대양을 육지처럼 건너기도 하다가 그의 사후, 쌓은 덕에 의해 그의 아버지 제우스에 의해 신들의 나라로 이끌려 갔다⁶⁾고 부각되고 있다. 때문에 헤라클레스는 일부 그리스도 교도들의 분노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다. 순교자 유스티누스, 락탄티우스나 아우구스티누스 등은 헤라클레스를 일컬어 영웅이라기보다 그냥 힘만 센 사람이었으며, 품행도 나빠서 그리스도와는 일교의 경쟁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변하였던 것이다. ⁷⁾

2. 디오니소스와 오르페우스

헤라클레스와 더불어 인기가 많던 또 하나의 신은 디오니소스이다. 전통적으로 포도와 연극의 신으로 우리에게 친숙한 디오니소스 신은 고대 종교사에서 매우 중요하고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신이다. 흔히 연인 제우스에게 잘못된 소원을 빈 결과 타 죽은 세멜레(Semele)의 아들로 알려져 있으나, 밀의(密議) 종교인 오르페우스교에서는 페르세포네의 아들로 나온다. 대지의 여신 데메테르가 제우스와 관계해서 낳은 딸인 페르세포네는 다시 자신의 아버지 제우스와 관계하여 디오니소스를 낳게 된다. 오르페우스교에서 디오니소스의 이름은 디오니소스 자그레우스이다. 어린 디오니소스를 티탄족이 과자로 꺾어 유괴해서 그를 요리해 먹는데, 간신히 남게 된 심장을 아테나 여신이 구해서 다시 디오니소스로 재생시켰다는 신화는 전통 디오니소스 신화에서는 보이지 않는 이야기이다. 디오니소스를 먹은 거인족의 타 버린 재로 인간을 만들었으므로 인간성 속에 신성과 야만성이 동시에 존재하게 되었다고 하기도 한다.⁸⁾

디오니소스 숭배는 당시 그리스도교와 공통점이 많았고, 그래서 경쟁대상이기도 했다. 디오니소스가 12월 25일 그 모습을 나타냈더라든가⁹⁾ 물을 포도주로 만든 기적 등이 그러하였다. 또한 티탄들에게 찢기어 죽었으나 제우스에 의해 다시 살아난 것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연상케 한다고 보았던 것이다. 즉 디오니소스 역시 신의 아들로 태어나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다시 부활하게 되고 여러 기적을 행하였다. 19세기 반기독교적 사상가 니체의 ‘그리스도냐 디오니소스냐’ 하는 명제는 유명하다.¹⁰⁾

디오니소스교와 오르페우스교는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원래 디오니소스 숭배에서는 회당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으나 기원전 3세기말 경에는 이가 많이 늘어나는데, 이 때쯤 오르페우스가 디오니소스 비교(秘敎) 의식의 중심으로 등장한다. 헤로도토스¹¹⁾는 오르페우스와 디오니소스(바코스) 축제를 동일시하고 있으며¹²⁾, 디오도로스는 오르페우스의 할아버지 카롭스가 디오니소스를 도와주었는데, 이를 고마워

4) H. Mattingly, "Jovius and Heracles," *HThR* (1952), pp. 131ff; M. Simon, "Early Christianity and Pagan Thought: Confluences and Conflicts," *Religious Studies*, 9, pp. 397-398; Id., *Hercule et le Christianisme*, p. 145, 151; D.L. Jones, "Christianity and the Roman Imperial Cult," *ANRW*, II, 23, 2. p. 1048.

5) D.E. Aune, "Heracles and Christ," ed. D.L. Balch, *Greeks, Romans and Christians*, Minneapolis, 1990, pp. 3-19; G.K. Galinsky, *The Heracles Theme*, Oxford, 1972, p. 5, 188; A. Toynbee, *A Study of History*, Oxford, 1939, pp. 469-475.

6) *Jul. Log.* VII, 219b. ff. *Id.*, *Log.* V, 166d-167a.

7) *Iust. Mart.*, *Dialogue*, LXIX, 3 (PG, VI, 637) cf. *Greg. Naz.*, *Log.*, IV, 70.

8) *Diod.*, V. 75.4; L.H. Martin, *Hellenistic Religions*, London, 1987, pp. 94ff; J.E. Harrison, *Prolegomena*, Princeton, 1991.

9) Macrobius, *Saturnalia*, 1, 18.

10) Cf. M. Clauss, "Mithras und Christus," *Historische Zeitschrift*, 243 (1986), p. 277; C. Kerényi, *Dionysos*, London, 1976, p. xxiii; C.F. Dupuis, *The Origins of All Religious Worship*, N.Y., 1984, p. 254; C.H. Martin, *Hellenistic Religion*, London, 1987, p. 95; H.S.J. Rahner, *Greek Myths and Christian Mystery*, London, 1963, p. 140.

11) Herodotos, II, 81.

한 디오니소스가 그에게 그의 비교(秘敎)을 전수하였다고 말한다.¹³⁾

오르페우스는 아마도 디오니소스 밀교의 신봉자인 동시에 개혁자였다고 볼 수 있고 그 때문에 전통 디오니소스 제식을 선호하던 신자들로부터 배척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오르페우스교는 보다 철학적이며 절제된 디오니소스주의였고, 일신교적 성향이 뚜렷하였고 높은 도덕적 삶을 영위할 것을 말하고 있다. 고전 문헌에서 오르페우스는 처음에는 일종의 샤만적 음악가 및 밀의종교적 신비가로 그려졌고 이때 아내 에브리디케는 별로 중요하지 않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다가 후기에는 점차 아내 에브리디케의 역할이 두드러지며 사랑으로 고통받는 이로서의 오르페우스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게 하기 위하여 오르페우스 디오니소스 종교를 만들었고 기독교가 퍼질 곳마다 이를 퍼지게 하였다고 우려하였을 정도로 닮은 점이 있었다.¹⁴⁾

2세기경의 클레멘스는 오르페우스와 예수 그리스도의 유사성에 대해서 주의하고 있다. 점차 일부 기독교도들은 오르페우스가 그의 죽은 아내 에브리디케를 구하려 지하 세계에 내려간 것을 그리스도가 죽음의 세력으로부터 영혼들을 구하기 위해서 지하로 내려간 것과 비교하기 시작하였다. 뱀에게 물려죽은 에브리디케는 인간의 영혼을 상징하며 그녀를 물어 죽인 뱀은 사탄이다. 결과적으로 오르페우스는 에브리디케를 구하는데 실패하였으나 그리스도는 하실 수 있었음을 대조시키고 있다.

4세기의 기독교사가 에우세비오스도 그리스도와 오르페우스를 비교하였는데, 오르페우스가 그의 음악으로 사나운 짐승들을 길들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들을 길들였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사나운 짐승 속의 오르페우스는 이사야 11장의 사자와 양이 뛰노는 평화로운 왕국의 그리스도의 원형으로 여겨졌다. 그리하여 카타콤베에서도 약기를 지닌 오르페우스 혹은 동물들과 함께 하는 오르페우스의 그림이 그려졌고 2세기경으로 추정되는 그림에 십자가에 달린 사람 밑에 오르페우스의 이름이 적혀있기도 하였다.

3. 아티스

소아시아의 프리지아 출신의 아티스 신은 ‘신들의 어머니’인 키벨레 여신의 연인이자 식물의 신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¹⁵⁾ 오비디우스에 의하면 아티스는 매우 아름다운 소년으로 신들의 어머니 키벨레의 사랑을 받아 그녀 신전의 사제가 되었다. 그러나 아티스가 님프와 사랑에 빠지자 키벨레의 노여움을 사서 미치게 된 후 자신의 페니스를 자르고 소나무 아래서 죽음에 이른다. 여러 가지의 형태로 남아 전하는 이 신화는 후일 이를 불쌍히 여긴 키벨레가 죽은 지 사흘 만에 그를 부활시켰다는 신화로 연결된다. 그리하여 키벨레-아티스 신을 모시는 사제들(Gallus-Galli)은 아티스의 죽음을 기념하여 스스로 거세하며 피의 행렬을 벌이는 연중 행사를 가졌는데, 이는 기독교의 부활절과 대체로 일치하는 시기에 열렸다. 당시 사람들에게 아티스가 (소)나무 아래서 죽었다는 것이나, 사흘 만에 다시 생명을 찾았다는 것,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일이 부활절과 비슷하다는 것 등은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켰다. 키벨레-아티스 의식에서 핵심적인 의례인 ‘taurobolium’, 즉 황소를 죽여 그 피로 세례를 주는 것은 기독교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로 비유되었다. 또한 아티스의 파트너 키벨레 여신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연관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처음 로마인들이 한니발 전쟁의 위기 속에서 시빌리나 신탁의 조언에 따라 키벨레 여신을 받아들였을 때, 아티스도 함께 로마에 들어왔을 터이지만, 아티스는 그들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다가 로마 제정 후기에 가면 서 아티스 신의 인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금석문 자료도 이를 예증하는데, 단 한번의 예를 제외하고는 295년 이후에야 아티스 신에게 바쳐진 비문들이 나오고 있다. 이처럼 아티스의 인기가 제정 후기에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기독교의 영향이라고 생각된다. 그리스도 교도들은 이교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라이벌로 부각되던 아티스에 대한 혐오감을 금치 못하였고, 이교도들은 기독교의 세력이 팽창하자 아티스는 다름 아닌 프리지아 모자를 쓴 그리스도와 다름없는 인물(Et ipse Pileatus Christus est)이라고 선언하기에 이르렀다.¹⁶⁾

12) 에우리피데스의 히플리토스에서는 테세우스가 ‘박코스 축제 거행하다(bakcheuein)’라는 동사를 오르페우스 의식을 가르키는 것으로 사용한다. 흑해 연안에서 발견된 뼈로 된 장식판에도 오르페우스 의식을 박코스 축제의 맥락에서 묘사하고 있다. 흑자는 오르페우스가 박코스 밀의를 만들었다고 한다.

13) Diodoros Sikulos, II, 165.

14) *Apologia*, I, 54

15) 이 부분은 M.J. Vermaseren, *Cybele and Attis*, trans. A. Lemmers, London, 1977; R. Duthoy, *Taurobolium*, Leiden, 1969; P. Lamprecht, *Attis*, Brussel, 1962; ed. E.N. Lane, *Cybele, Attis and Related Cults*, Leiden, 1996 참조.

4. 미트라신

고대의 종교 중에서 미트라교만큼 그 교리가 비밀에 싸인 종교도 드물 것이고, 또한 그만큼 고고학적 자료만은 풍부한 종교도 드물 것이다. 미트라교 의식은 주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어두운 지하실이나 동굴형의 신당(MITHRAEUM)에서 치루어졌다. 모든 미트라교 신당에는 소를 죽이는 미트라 의 모습이 맨 중앙에 있고, 입교 신도들은 이 황소의 피로 세례받는 의식을 갖게 되어 있었다. 황소에 칼을 쏘는 미트라 의 상 좌우에는 카브테스와 카브로파테스라 불리는 두 명의 소년상이 있다. 둘 다 햇불을 손에 들고 있는데, 카브테스의 햇불은 불길이 위를 향하고 있고, 카브로파테스의 햇불은 아래로 향하고 있다. 흔히 미트라, 카브테스, 카브로파테스를 미트라교의 3위 일체라고도 한다. 햇불을 위로 향하고 있는 카브테스는 아침의 태양, 따뜻함과 생명, 춘분을 의미하며, 햇불을 아래로 향하고 있는 카브로파테스는 저녁의 태양, 차가움과 죽음, 추분을 의미한다고 보며, 미트라는 정오의 태양으로 해석되기도 한다. 이들의 주변에는 전갈과 개, 뱀, 갈가마귀 등이 포진하고 있다. 뱀, 전갈 등은 이 소의 피를 마셔 버림으로써 생명을 탄생을 막으려고 하는 반면 개 등은 미트라에게 충성을 다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흔히 해석된다.¹⁷⁾

미트라는 원래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에서 빛의 신이자 최고의 신 아후라 마즈다와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았던 태양신이었다.¹⁸⁾ 미트라는 한 무화과 나무 아래 큰 바위 속에서 12월 하순경 목동들이 보는데에서 탄생하였다. 한 손에는 햇불을 들고 나와서 밝게 비추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칼을 들고 나와서 무화과 나무 잎을 따서 몸을 가렸다. 어느날 미트라는 검은 소의 옆구리를 찔러 죽였다. 이 소의 몸에서 온갖 곡식과 채소 물고기 등이 생겨났다. 선의 신인 아후라 마즈다의 라이벌인 악의 신 아리만이 심한 가뭄을 일으켜 땅의 모든 생물이 말라죽게 되자 미트라가 창으로 바위를 찔러 샘물이 솟아나게 하였고, 아리만이 홍수를 보내어 모든 생물을 쓸어버릴려고 하자 미트라는 한 진실한 사람에게 배를 만들게 하여 짐승과 곡식의 씨를 가지고 그 배를 타게 하였다. 사람들에게 매우 수준높은 도덕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미트라는 하늘에 올라가 있는데, 때가 되면 다시 올 것이며 죽었던 사람들도 살아날 것이다.

기독교 교부 테르툴리아누스가 “미트라교는 사탄이 기독교를 모방해서 만든 종교이다.”라고 하면서 싫어했고, 19세기 사가 르낭은 “만약 기독교가 없었더라면 미트라교가 세계를 지배하였을 것이다.”¹⁹⁾라고 할 만큼 기독교와 닮아 있었던 종교였다.

II. 십자가와 기독교

이상에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라이벌로 부각되었던 대표적 신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다. 이외에도 특히 인기가 많았던 신으로는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가 있었다. 아폴론의 아들로 태어난 아스클레피우스는 반인반수 케이론에게 의술을 배운 후 그 의술로 수많은 사람들을 살려내자 명계의 왕 하데스의 불평으로 제우스에 의해 죽게된 이였다.

16) Jul., *Log.*, V.179c; Aug., *Iob. Evang. Tract.*, 7.6; Fir. Mat., *De Err. Pro. Rel.*, 22.4.

17) 미트라교 비밀 의식의 궁극적 목적은 인간의 영혼이 지구를 벗어나 수성, 금성, 화성, 목성, 달, 태양 등의 항성을 지나 토성(Saturn)의 성좌에 도달하는 것이다. 미트라교는 인간 세상의 선과 악 사이에서 각 영혼은 선을 선택하여야 하며, 엄격한 도덕적 훈련과 비밀 의식을 통하여 점진적인 영혼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천체에 7개의 항성이 있듯이 미트라교의 단계도 7단계로 구성되어 있었다. 수성 단계인 갈가마귀 단계, 금성 단계인 신랑 단계, 화성 단계인 군병 단계, 목성 단계인 사자 단계, 달 단계인 페르시아인 단계, 태양 단계인 질주자, 그리고 마지막의 토성 단계인 아버지 단계로서 입교자는 신앙이 성숙함에 따라 각 상급 단계로 승단하였다. 고고학적 발굴로 볼 때도 미트라교가 천문학과 밀접한 관계를 가졌던 것을 알 수 있는데, 대개 그 천장 쪽에는 여러 천체신들이 각 황도에 따라 그려져 있다. 그 맨 좌우에는 흔히 오케아누스(Oceanus) 신, 우라노스(Uranos)라는 하늘의 신이 포진해 있다.

18) 미트라교에 대한 참고 문헌은 다음과 같다. 고전적 연구서는 F. Cumont, *The Mysteries of Mithras*, trans. S. MacCormack, N.Y., 1956; M.J. Vermaseren, *Mithras, the Sacred God*, trans. I. Gershevitch, London, 1963; *Mysteria Mithrae*, ed. U. Bianchi, Leiden, 1979, EPRO 80. 미트라 신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페르세우스와의 관계를 다룬 최근의 연구서는 D. Ulansey, *The Origins of the Mithraic Mysteries*, Oxford, 1990. 기타 쉽게 씌어진 논문으로는 L.H. Martin, “Roman Mithraism and Christianity,” *Numen*, 36 (1989), pp. 2-15. C. Lease, “Mithraism and Christianity: borrowing and transformations,” *ANRW*, II.23, 2, pp. 1306-1332.

19) E. Renan, *Marc-Aurèle*, Paris, 1888, p. 579.

이들은 대개가 신들의 아들로 태어나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죽은 후에 신들의 반열에 들었다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하게 여겨졌다. 헤라클레스, 디오니소스, 미트라 등은 모두 동지경 즉 오늘날의 크리스마스 전후에 태어났고 기적과 능력을 행하였고 모두 신들의 반열에 들었다. 나무 아래서 죽었다가 사흘만에 부활절과 비슷한 시기에 살아난 아티스신도 있었다. 이는 사탄이 크리스트교를 모방하여 만들었다라든가 사탄이 크리스트교가 퍼질 곳에 이를 퍼뜨렸다라는 한탄 혹은 비판하는 변증가 혹은 교부들의 글에도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 신들은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더 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었다. 헤라클레스는 갈릴리 호수를 걸어간 정도가 아니라 대양을 땅처럼 걸을 수 있었으며, 의료의 신 아스클레피우스는 예수가 치료한 환자보다도 더욱 많은 환자들을 한꺼번에 치료할 수 있었다. 디오니소스는 몇 개의 통의 물을 포도주로 만든 예수의 기적과는 비교도 안되게 아예 포도주의 신이다. 예수에 대항할만한 이교측 성인으로서 선택되어 그 전기가 세베루스 왕조치하에서 씌여진 타나의 성인 아폴리니오스가 베푼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푼 것보다 더욱 컸다. 오르페우스교나 미트라교는 매우 높은 도덕적 삶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여러 이교신들의 탄생, 이들이 베푼 기적, 능력, 여러 가지 현상 등은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한 혹은 더 위대한 외양을 지니는 듯 하지만 하나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십자가이다. 순교자 유스티누스도 이들 사탄들은 크리스트교를 여러모로 모방하여 방해하려고 하였지만 십자가만큼은 모방할 수 없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들 이교신들 중에서 죽어가는 신들도 있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들 신들의 죽음은 언뜻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고 간 십자가의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오르페우스는 자기 부인이 죽은 이후에 다른 여성들을 거들떠보지 않았으므로 수치심을 느낀 다른 여성들에 의해 죽음을 당하였으며, 오시리스는 자기의 동생에 의해 토막살인을 당하였으며 아티스는 키벨레를 버리고 다른 요정과 바람을 피운 결과 미친 결과 자기의 페니스를 자르고 죽음을 선택한다. 디오니소스는 티탄족에게 과자로 꼬임을 당한 후에 요리되어 죽임을 당한다. 이 모든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죄인을 위한 구속적 죽음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다. 예컨대 아티스가 죽은 시기나 죽은 장소, 부활하였다는 축제일등은 수난절과 부활절과 외형적으로 비슷할지 모르나 본질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다. 또한 십자가를 지는 모습의 오르페우스그림이라든가 황소의 피로 세례받는 미트라입교 의식 등 비슷하게 이를 모방하려는 움직임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가지는 의미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펠릭스(Minucius Felix)가 “십자가들은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아닙니다²⁰⁾”고 걱정된 것처럼 십자가 그 자체가 부적과 같은 경배의 대상인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그렇다는 말이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종교이다. 십자가 상의 대속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은 역사상 유일무이한 것이다. 십자가의 그리스도! 처형과 고문의 도구였던 십자가는 예수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과 화해의 영원한 상징이 되었다.²¹⁾

십자가 안에 숨겨진 기독교의 본질적 내용들은 로마 시대에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크리스트교를 믿지 못하는 이들에게 ‘미련하고 거친 것’이었다. 그것은 특히 다음의 세가지 점에서 그러하였는데, 이는 성육신과 부활, 속죄 사상이었다.

우선 성육신과 부활 사상이었다. 고대의 지성인들에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이야기는 전혀 논리적이지가 않았다. 당시 철학의 주류는 신플라톤주의였는데, 이들에게 이 세계와 신들은 여러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었다.²²⁾ ‘신들의 신들(theoi theon)이 있는 층위구조를 가지는

20) *Octavius*, 29:6

21) 일본학자 우매하라 다케시는 공자나 석가는 천수를 다한 데 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죽임을 당했다. 살해당한 인간을 숭상하는 서양문명은 자연히 공격적이거나, 천수를 다한 인간을 숭상하는 동양문명은 평화롭고 평온한 것이라 하였다. 그의 말을 들으니 정말 동양문명이 평화롭고 평온하였던 것같은 착각이 든다.

22) 신플라톤주의자들은 흔히 우주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로 구분한다. 플로티누스는 One(Hen), Mind(Nous), Soul(Psyche), 물질(hyle)의 4가지 요소로 우주를 설명한다. 일자는 이 세상 최상의 존재이다. 일자(One-Hen)는 무한하며, 완전하며, 언어도 덕도 그 어떤 것과도 초월해있다. 그 아래의 단계에는 Nous가 있다. 태양이 있으면 빛이 자연스럽게 나오듯이 One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유출’ 되는 것이 Nous이다. Nous는 첫 유출물로 모든 존재의 원형이며 본질(essence)이다. 그 다음 단계에 위치한 Soul은 Nous처럼 비물질적 실체로서 Nous의 구체화된 이미지이며, 삶의 원리이기도 하다. Soul에는 세계정신(World Soul)과 개별 Soul의 두 종류가 있다. 현상세계와 Nous 사이에 존재하는 Soul이 미덕과 절제적인 정화에 성공한다면 육체를 벗어버리고 신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구원의 상태를 말한다. 마지막 존재가 물질(hyle)인데 이는 현상 세계이다. Cf. P. Merlan, *From Platonism to Neoplatonism*(Hague, 1975), pp.221ff; C.L. Tripathi, “The Influence of Indian Philosophy on Neoplatonism”, *Neoplatonism and Indian Thought*, ed. R. Baine, pp.274ff. 이러한 우주관은 정교성이나 복잡성에서 사람에 따라 다소 차이가 나지만 대개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진다. 이암블리쿠스에 의하면 우주는 세 개의 세계로 구성되어 있다. 보

것이다.²³⁾ 플라톤적인 사고에 의하면 이 세상을 창조한 신은 데미우르고스이다. 데미우르고스는 물질과 직접 접촉하였으므로 최고의 신보다 저급한 신이다. 영지주의 한 분파에 의하면 여호와신이 바로 일종의 데미우르고스인 악한 신이며, 오히려 인간에게 지혜를 가르쳐주려 한 뱀이 선한 존재이다. 그 모든 중간 단계의 세계들과 신적인 존재들을 떠나서 있는 최고의 신 혹은 일자는 완벽한 존재의 지고한 신이었다. 완벽하다는 것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고 따라서 모든 감정과 정념(pathos)을 초월해(apathos) 있는 상태이다. 그들에 의하면, '정념'이란 무엇인가 부족한 상태임을 의미하는 것이므로²⁴⁾, 완벽한 신이 무엇인가 부족한 것처럼 더 하위적인 위치로 이동한다는 것은 논리적인 오류이고 불가능하다.

따라서 '인간으로 온 고난받는 하나님'은 말도 안되는 이야기이며,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질투'나 '종의 형체로 자기를 비운 겸손'은 그들에게는 원래 이해되지 않는 덕목에 가까웠다. 이교철학자 켈수스는 말한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서 가장 나쁜 것은 성육신과 부활이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든가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등의 불경건하고 웃기는 이야기들을 기독교도들은 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독교 반박문」을 쓰기까지 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였다면 어찌 본디오 빌라도가 무사하였겠는가고 반문한다. 디오니소스를 미워한 펜테우스는 참혹한 벌을 받았는데 말이다.

이들에게 부활 역시 이해하기 힘든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죽는다는 것은 감옥이었던 육신에게서 벗어나 영혼이 이제 천상의 세계로 돌아간다고 믿었기 때문이었다. 아니면 그냥 어둡고 축축한 지하세계에 떠돌아다닌다고 생각했다. 운 좋은 몇몇은 엘레시스 평원에 거주할 것이었다. 현재로 소문났던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도 기독교도들의 어리석음은 부활과 영원한 삶에 대한 믿음에서 극치에 달한다고 여겼다. 기독교도들의 용기는 어린 아이같은 무지와 광기에서 나온 것이다.²⁵⁾

이러한 성육신과 부활과 더불어 당시 가장 스캔들이 된 것은 속죄개념이었다.²⁶⁾ 예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주어진다는 기독교의 교리는 너무나 비논리적이고 어리석게 비추어졌다. 그들에게 구원이란 극소수의 선한 사람, 예컨대 소크라테스같은 지극히 선한 생활을 한 사람들이 그들의 올바른 행실의 결과로 얻게 되는 열매였다.²⁷⁾ 대부분의 이교철학자들은 기독교의 속죄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다.

켈수스는 “다른 (밀의)종교의 성직자들은 외친다. 마음이 청결하고 말이 신중하고 죄에서 깨끗한 이들

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 noetos(intelligible) kosmos(world) 와 noeros(intellectual) kosmos와 눈에 보이는 감각(현상)세계, 즉 aisthitos(visible) kosmos가 그것이다. 예컨대 지금 우리가 하늘에 보는 태양이 현상 세계의 태양이라면 눈에 보이지 않는 두 개의 세계에서도 태양이 있다. noeros kosmos의 태양은 태양신 아폴론 등으로 나타나며 그보다 더 높은 세계에서 태양은 인간의 언어를 초월하는 신으로 존재한다. 플라톤이 현상 세계와 이데아의 세계와 비슷한 논리이다. 이러한 신들과 인간들 사이에는 신령들, 천사들, 영웅들이 중간적 존재로서 존재한다. 우주를 반영한 소우주인 인간도 대체로 세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다고 믿어졌다. 현상 세계에 해당하는 신체soma와 영혼pneuma과 정신nous이라는 세 영역이다. 그 당시 강력한 한 지적 조류였던 영지주의적 구원관에 의하면 정신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는 일반 대중을 위한 구원의 방식이라면 영은 바로 그노시스 즉 '지식'으로 구원을 받으며 이는 특히 소수의 특권받은 사람에게 허락된 것이라는 것이다. 켈수스는 psychikoi, pneumatikoi, gnostikoi의 세 종류 타입의 사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23) 로마인들의 다신교 체제 즉 부분적으로 나는 신적 존재의 임재, 능력, 힘의 행사에 대해서 J-P. 페르낭은 고대의 그들은 '전체로서의 활동의 개념(the concept of work)을 갖지 못하였고 제한된 활동들의 결합된 산물의 과정으로 이해하였다고 하였다. 샤이드도 이는 행위나 활동 일의 통합된 총체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가 결여된 로마인의 사고 구조와 불가분하다고 보면서 로마 시대의 모든 신적인 존재들이나 다신교적 구조는 하나의 개념과 행위를 다른 층위에서 표현한 것으로 본다. J. Scheid, "Hierarchy and Structure in Roman polytheism: Roman Methods of Concerning Action", *Roman Religion*, eds. C. Ando, Edinburgh, 2003, pp.164-187 특히 186.

24) Origenes, *Contra Celsum*, IV, 73. Cf. T.R. Glover, *The Conflict of Religions in the Early Roman Empire*(London, 1909), p.246 ff; W. Fairweather, *Jesus and Greeks*(Edinburgh, 1924), Ch. V-VII; H. Chadwick, *Early Christian Thought and the Classical Tradition* (Oxford, 1986), p.28 ff.

25) 루키아누스에게 기독교도들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한 소피스트를 믿는 어리석은 자들로서 철학할 시간도 인내도 시간도 없는 사람들이며, 갈렌에게 크리스티교도들은 비할 데 없는 편견에 짊어진 사람들로 이들은 진리에 대한 열망보다 무지에 입각한 노력을 하는 이들이다.

26) 한편 보통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성육신은 오히려 이해하기 쉬운 개념이었다. 왜냐하면 헤라클레스나 아테나나 이러한 많은 신들은 인간의 모습으로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배웠기 때문이다. 부활 사상 역시 이집트인들을 비롯하여 믿어왔던 전통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보통의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역시 속죄의 개념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그들에게 신들은 까다로운 제식으로 달래주어야 하는 대상이고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대상이었지 그들에게 구원을 얻는다는 개념은 다소 생소하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이들 종교에 비해서 이시스 여신이나 미트라, 엘레우스의 밀의 종교들은 그들에게 이러한 구원을 약속해주었는데 그 방법은 이들 밀의 의식에 입교하고 정교한 절차에 맞추어 의식을 행함으로써였다.

27) Origenes, *Contra Celsum*, III, 59. Cf. H.I. Bell, *Cults and Creeds in the Greco-Roman Egypt*, (Liverpool, 1957), pp.102-5.

-선하고 속이지 않는 이들은 오시오. 그러나 기독교도들은 누구를 오라고 하느냐? 죄인들, 어리석은 이들, 유치하고, 불행한 이들을 오라고 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것이며, 하나님은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 부정한 자들, 도둑들, 강패들, 죄수들, 신전과 무덤의 강도들 같은 죄인들에게 보내졌다고 한다. 죄 없는 것이 무슨 잘못이란 말인가?... 사악한 이들은 하나님이 받고, 선을 행하고 처음부터 하늘을 쳐다보는 의로운 사람은 받지 않는단 말이냐며 비판한다. 28)

한때 기독교도였다는 설이 있을 정도로 기독교에 관한 지식이 많았으며 역시 「기독교 반박문」을 쓴 적도 있었던 포르피리우스는 기독교도들의 구원관은 경멸스러운 것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사악한 인간들을 구원하려 왔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신의 수난이나 하나님 아들의 수난에 관한 말도 안 되는 것을 가르침으로써 신을 모독하고 있다. 바울 자신이 세상의 찌꺼기라고 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반역자, 비겁자, 약자, 위선자임을 자백하고 있듯이, 개종자들은 최악의 부류의 사람들이며, 도덕적으로 악한들이다. 궁극적으로 구원은 덕의 추구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강변한다. 29)

로마제국 최후의 이교황제였던 율리아누스도 (영웅들과 짝하는 여러 전통적인 위엄있는 이교신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를 살인자 간음자 등의 죄인들의 신으로, 어떤 무서운 죄도 몇 번 가슴을 치고 물로 씻음으로 용서해주는 방탕한 신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들이 십자가 속죄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비판한 근본 이유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을 뼈저리게 깨닫지 못한데 기인하였다고 보여진다. 이들은 인간의 노력으로 선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의 뉴에이지 운동과도 통한다. 『배꼽』으로 유명한 라즈니쉬는 말한다. ‘기독교는 사람을 한없이 초라하게 만든다. 심판이 있다고 겁을 주고 죄인이라고 주눅들게 한다. 그러나 인간은 위대하며 그 안에 신 혹은 우주와 통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그것을 개발해야 한다.’ 필자가 보기에 그의 말의 반은 맞다. 즉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창조되었으므로 신의 성품을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반은 모르고 그것은 치명적인데, 즉 우리의 죄 문제를 눈감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십자가의 의미가 있다.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그리스도의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없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려고 하는 가르침이야말로 거짓의 아버지의 대표적 가르침이다.

코란을 읽으면서 구약성서와의 유사성에 대해서 놀란 적이 있다. 아담과 에덴 동산에서부터 아브라함과 이스마엘 이삭까지 구약성경과 너무나 닮아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이론들이 많이 있겠지만 필자가 보기에 마호멧이 이해한 알라는 분명히 구약의 여호와 혹은 엘이 틀림없다. 그러나 코란도 십자가를 정면으로 부인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위대한 선지자로 십자가를 지지 않고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이다. 그러나 십자가는 신약성서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모든 공관복음이 십자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지만 특히 요한 복음의 반 이상은 그리스도의 마지막 며칠을 다루고 있다.

한마디로 이들 모두는 인간의 지독한 죄악성과 십자가로 완성된 성육신의 사랑과 죄사함이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켈수스는 기독교도들은 신이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해 창조했다는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한다고 즉 기독교도들은 너무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고 비판한다. 인간은 창조의 절정이 아니며 이런 인간을 위해서 신이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된다는 것이다. 흔히 헤브라이즘을 신중심적으로 헬레니즘을 인간중심적 사상으로 비교하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리스도교야말로 하나님 중심적 종교인 동시에 가장 ‘인간중심적인 종교’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를 너무 사랑하여 가까이 죽으러 오셨기 때문이다.

기독교와 닮은 꼴을 보이던 모든 종교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면 우리는 좀더 십자가에 유의해야 되지 않겠는가하는 생각이 든다. 사도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생각하지 않기도 결심하였다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운다고 고백하고 있다. 그리스도께서 직접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며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오늘날 온갖 이교의 신들의 이름은 사라져간 듯 하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교내에서 다른 이름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도 든다. 아스클레피우스적 예수, 헤라클레스적 예수, 아티스적 예수, 디오니소스-오르페우스적 예수 등, 무늬만 예수이지 그 관념은 고대의 이교신들을 그대로 계승한 예수, 예수 그리스도 비슷하나 실상은 거짓 예수를 한국 교회에서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전인격적 만남이 결여될 때 그러한 현상은 일어난

28) *Contra Celsum*, 3. 59, 62-3

29) 재미있는 것은 이런 포르피리우스가 자기의 부인 마켈라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최고의 덕목은 사랑 믿음 소망이라고 말하고 있는 점이다. 믿음 소망 등은 플라톤철학에서 하위 덕목에 불과하였던 것에 비하면 흥미로운 변화이다.

다. 하나님을 뒷방 늙은 아버지처럼 무시하고 살면서 가끔은 화내지 않도록 여러 예물로 달래주어야 하는 대상으로, 혹은 예물로써 필요한 것을 얻어내는 기복의 대상으로³⁰⁾, 혹은 우리의 도덕적 수양으로 도달되는 대상으로, 신령과 진정이 결합된 예배와 의식적 체계 속의 신으로 파편적으로 교체하고 있지는 않는가 경계해야 할 것이다.

마르크스가 종교를 이데올로기로 파악한데 비해서³¹⁾ 만하임은 유토피아적 종교와 이데올로기적 종교로 두 종류로 나누었다. 크리스트교가 유토피아적인가 이데올로기적인가 다를 이유는 없다. 역사적으로 보아 두 가지 양식 다 존재해왔기 때문이며 지금도 그러하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이데올로기거나 ‘신화’일 수 밖에 없다. 본회퍼(Dietrich Bonhoeffer)는 값싼 은혜와 비싼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없는 값싼 은혜야말로 교회의 최대의 적이라고 보았다. 값싼 은혜는 죄의 고백과 회개없이 죄의 사유와 세례와 성만찬이 가능한 은혜이다.³²⁾ 은혜는 생명의 뗏기이며 은혜를 위하여 생명을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한다.³³⁾

30) 고대인들에게 종교 행위의 목적은 대체로 신을 불러내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활동하게 하는 것으로, ‘do ut des’, 즉, ‘...하니까 ...해달라’ 혹은 ‘...해 주면 ... (보답)하겠다’는 성격이 강하였다. 로마인들에게 ‘종교religio’는 일종의 복잡하고 정교한 희생 의식이었고, 도덕률을 반드시 내포하지는 않았다. 즉 신을 달래고 신에게 희생의식을 바칠 필요는 있었으나, 믿음으로 로마인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다. 예컨대 키케로는 “유피테르는 가장 위대한 최고의 신인데, 그 이유는 그가 우리를 정의롭게나 진실하게 만들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우리에게 건강과 부와 번영을 주기 때문이다.”고 하였다. 숭배의례적 행위들은 믿음보다 더 중요한 요소였고, 도덕적 요소는 종교가 아닌 철학이 제공하고 있었다. 노크(A. D. Nock)에 의하면 의례적 행위와 도덕률 혹은 철학을 결합하여 체계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종교는 기독교였는데, 이러한 견해는 4세기 때의 교부 성 아우구스티누스도 이미 피력한 바 있었다. A. D. Nock, *Conversion*, London, 1965, p. 16, 103. R. A. Marcus, *Christianity in the Roman World*, London, 1974, pp. 27-40. Augst., *De Vera Religione*, 5.8. 이렇듯 철학 혹은 도덕과는 분리된 범주로 존재하였던 로마의 종교는 후일 기독교와의 투쟁 과정을 거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중에 그 최종적 형태에서 서로 결합되는 현상을 나타내게 된다.

31)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권력계급이 자신의 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현실을 포장하는 허위적 이념으로 현실을 왜곡하고 은폐하는 기능을 한다.

32) 귀중한 은혜가 인간의 세속적 종교적 본능에 권리를 만들어주는 결과가 되고 은혜는 그로 인하여 점차 싸게 파악되었고, 은혜가 범죄하는 데 용기를 주는 근원이 되었다. 이런 결과는 극히 적은 잘못된 액센트에 따른 것으로 적은 과오가 가장 위험하고 저주스러운 결과를 가지고 온 것이다. 은혜에 의하여 순종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순종이 은혜에서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다. 은혜라 함은 죄의 생활을 결정적으로 끊는 일이지 결코 그 생활의 변명을 뜻할 수는 없다. 값싼 은혜는 결국 듣는 힘도 자유도 주지 못하는 또 하나의 율법에 불과하다. 비싼 은혜는 죄를 실제로 용서하고 죄인을 자유롭게 하는 유일한 은혜이다. 초대 교회가 몹시 조심스럽게 교회와 세상 사이의 한계와 비싼 은혜를 지킨 노력은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싼 은혜같이 우리 복음적 교회에 잔인한 것은 없다. D. Bonhoeffer, *Nachfolge*, München, 허혁역, 『나를 따르라-제자의 길-』, 대한기독교서회, 1975. pp. 24ff.

33) 폴 킬리히는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며 종교는 문화에 의미를 주는 실체라고 한 바 있다. 그런 의미에서 십자가의 의미를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대중 문화적 측면과 연관하여 보면서 마칠까 한다. 대중 문화에 대해서 프랑크푸르트 학파는 상품·소비문화로서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도구화 수단화되어 허구적 욕구만을 창출시켜 결국에는 전체주의 온상을 배양하는 하위문화로 보았다. 반면 1950년대 미국 사회 이론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문화적 다원주의 혹은 문화적 민주주의 입장의 대중문화론은 이를 긍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본다. 베네트(T. Bennet)는 대중문화는 지배적 피지배적 혹은 서로 상충하는 문화적 이데올로기적 가치와 요소들이 조합된 두 문화의 타협 장소라고 본다. 알튀세르에 의하면 이들은 일종의 경찰 군대 법원등의 억압적 국가기구와는 구별되는 이데올로기적 국가 기구이다. 여하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은 우리 모두를 둘러싸고 있는 이 대중 문화에 기독교적 세계관이 침투되어 들어가서 이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일 것이다. 하나님 주신 ‘문화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며, ‘정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삶의 의미와 가치를 진지하게 표현하는 문화가 소비적 공리적 쾌락적 오락문화 속에 파고 들어가야 하는데, 여기서 필자는 아도르노의 견해에서 시사 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한다. 계몽의 변증법에서 아도르노는 문화산업은 대중의 진정한 욕구 충족은 이루지 못하면서 걸포장과 즐거이만을 바꾸어가면서 소비자를 기만하며, 대중을 지속적으로 가상적인 욕망 충족에 시달리도록 만든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그는 진정한 문화란 자신의 작품 속에 자신의 고통의 체험이나 사회를 향한 외침과 진리를 새겨놓은 것이어야 한다고 한다.

